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 2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 기뻐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 4 우리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 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 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렴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9월 20일(목) 기도 담당 : 한상열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92장 ..... 다 같 이

기 도 ..... 홍광진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27:1~29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분별하지 못하고 내린 축복은 유효한가?』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540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9월 18일(화)	창 26:13~33	속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에 숨은 축복
9월 19일(수)	창 27:1~29	분별하지 못하고 내린 축복은 유효한가?
9월 20일(목)	창 27:30~46	보이지 않는 축복을 손에 쥔 결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19일 (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비록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다 할지라도, 야곱 속에 내재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를, 또 그 믿음이 실린 마음과 행동을 받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시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학업,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불쑥 불쑥 나타나는 경제, 건강, 기타 각양의 곤고함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131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저희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 이제 새 성전건축을 통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새 성전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매순간마다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들의 삶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코트디부아르로 떠난 의료선교부원들의 발걸음을 친히 주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준비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귀국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빛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빛 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공활을 구합니다.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애국심을 허락하시며, 모든 국민들은 성실과 진실함으로 각 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대북관계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송축받으실 결과가 도출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나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